

202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⑤	2	③	3	⑤	4	④	5	⑤
6	②	7	③	8	④	9	③	10	①
11	①	12	⑤	13	①	14	②	15	⑤
16	④	17	①	18	⑤	19	⑤	20	②
21	②	22	③	23	③	24	①	25	④
26	②	27	④	28	①	29	⑤	30	①
31	④	32	①	33	②	34	②	35	③
36	②	37	④	38	②	39	③	40	①
41	③	42	④	43	①	44	④	45	⑤

해설

[1~3] 화법

1. [출제의도] 발표 계획 점검하기

학생의 발표 마무리 부분에서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호기심을 환기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우리나라 옷칠의 역사를 연구한 논문의 내용을 언급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③ 1문단에서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유도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옷칠의 개념을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생칠을 가공하여 정제칠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므로, 두 종류의 옷칠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은 옷칠을 하지 않은 제품과 옷칠한 제품을 함께 제시하며 두 제품의 차이를 보여주는 화면이므로, 옷칠을 하지 않은 제품에 옷칠을 한 후 생기는 변화를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은 옷칠의 첫 번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옷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이므로, 옷나무를 심고 가꾸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옷칠을 사용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보여주는 사진이므로, 옷칠 사용이 확인된 시대별 유물을 함께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옷칠이 예전의 역할을 많이 잃었음을 드러내기 위해 옷칠을 대신하게 된 합성 방부제 등을 보여주는 사진이므로, 옷칠 계승의 모범 사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분석하기

‘청중 3’의 반응에서는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청중 1’의 반응 중 ‘발표자가 이야기한~한다고 생각해.’를 통해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발표자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청중 2’의 반응에서 할머니 택에서 오래된 나전칠기를 보았다는 개인적인 경험이 나타난다. ‘청중 2’는 이와 결부지어 나전칠기와 같은 옷칠 공예 작품에서 옷칠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 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청중 3’의 반응에서 옷칠이 가진 뛰어난 전자파 흡수력이 어떤 제품에 활용되는지 의문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자

료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④ ‘청중 1’은 공예품에 활용된 옷칠을 새로운 디자인 영역에 응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청중 3’은 옷칠 공예가 발전하려면 옷칠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둘은 공통적으로 발표에서 소개한 분야(옷칠 공예)의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펼치고 있다.

[4~7] 화법/작문

4. [출제의도] 토론의 입론 이해하기

반대 1은 학생회장 선거 시기의 변경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학생회장 후보자의 범위가 축소될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회의 권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찬성 1은 주장의 셋째 근거로 학생회의 연속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② 찬성 1은 인근 학교의 사례인 새로운 선거 문화를 언급하여 주장의 둘째 근거로 삼고 있다.

③ 반대 1은 주장의 첫째 근거 말미에 2학년 학생회장 과 전임 3학년 학생회장 간에 알력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⑤ 반대 1은 주장의 셋째 근거로 학생회장의 의지와 체계적인 활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5. [출제의도] 토론의 반대 신문 비판하기

반대 2는 [A]에서 학생회장 선거 시기의 변경으로 학생회의 연속성이 강화된다고 언급한 찬성 1에게 그 이유를 묻고 있다. 이것은 찬성 1이 입론에서 다 언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찬성 1은 [B]에서 반대 1에게 적극적인 학생회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고 있다. 이것 역시 반대 1이 입론에서 언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A], [B] 반대 신문은 모두 상대측 주장의 오류를 검증하지 못하고 상대측에게 자기주장을 보충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수립하기

(나)에는 학생회장 선거 시기의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해당하는 선후배 간의 알력 발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선거 시기 변경에 따른 후보자 간 공개 토론이 새로운 선거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③ 4문단에서 반대 측이 우려하는 전후 학생회장 간의 갈등도 학생회의 자율성을 기르기 위한 좋은 경험이라며 인식 전환을 유도하였다.

④ 1문단에서 3학년 임원 중심인 지금까지의 학생회는 대학 입시 준비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기 때 문임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⑤ 1문단에서 적극적인 학생회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가 제정되는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쓰기

‘쇠뿔도 단김에 빼라.’라는 속담을 활용하였으며, 자신의 주장인 ‘학생회장 선거 시기를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하였다.

[오답풀이] ① ‘손바닥 뒤집듯 하다.’라는 속담은 활용하였으나, 학생회장 선거 시기의 변경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주장과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②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며 마무리했으나, 속담이나 비유를 활용하지 않았다.

④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은 활용했으나, 학생회 임원 구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지 못하였다.

⑤ 속담이나 비유도 활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생회장 선거 시기를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 측의 주장으로 마무리하였다.

[8~10] 작문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글쓰기가 초고를 통해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비즈쿨 캠프를 소개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인터뷰를 소개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글쓰이는 비즈쿨 캠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진행되는 캠프의 주요 내용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다.

② 글쓰이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방문해 보기 바란다.’라는 말로 독자에 대한 바람을 언급하였다.

③ 글쓰이는 서두에서 청소년 비즈쿨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신문에 비즈쿨 캠프를 소개하게 되었다는 말로 글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⑤ 글쓰이는 비즈쿨 캠프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K-스타트업을 안내해 주고 있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자료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인데, 이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면 정부 지원의 창업 관련 사업에 학생들이 불참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보완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고친 글을 [A]와 비교하면, [A]에서 ‘비즈쿨’의 개념을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라고 설명한 문장에 ‘일(Business)과 학교(School)의 합성어인데’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에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니 부연 설명을 추가’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또 고친 글을 [A]와 비교하면 ‘길러서’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양성’이라는 단어가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 냄.’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므로 의미가 중복되는 ‘길러서’를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11~15] 문법

11. [출제의도] 조사의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국어에서 ‘아니다’ 앞에 조사 ‘이/가’를 취하여 나타나는 문장 성분을 보이라고 말한다. ㉮의 문장 중 조사 ‘이’는 체언인 ‘인물’에 붙어 보어가 되게 하는 격 조사이다. 따라서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조사의 기능 이해하기

‘너는 부산에서 몇 시에 출발할 예정이야?’에 사용된 조사 ‘에서’는 체언인 ‘부산’ 뒤에 붙어서 앞말이 문장에서 부사어 자격을 갖게 한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올해도 우승을 차지했다.’에 쓰인 조사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인 ‘학교’ 뒤에 붙어 앞말이 문장에서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의 두 문장에 쓰인 조사 ‘에서’는 형태는 같지만 문장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두 문장에 쓰인 조사 ‘가’는 모두 앞말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② 두 문장에 쓰인 조사 ‘를’은 모두 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문장에서 목적어 자격을 갖게 한다.

- ③ 두 문장에 쓰인 조사 ‘에’는 모두 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문장에서 부사어 자격을 갖게 한다.
④ 두 문장에 쓰인 조사 ‘과’는 모두 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문장에서 부사어 자격을 갖게 한다.

13.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하기

‘놓는[논는]’은 받침 ‘ㅎ’이 ‘ㄷ’으로 교체되고, 앞의 ‘ㄷ’이 뒤의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교체된다. ‘칼날[칼랄]’은 뒤의 ‘ㄴ’이 앞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된다. 두 단어는 교체만 일어났으므로 음운 변동 전후 음운의 수가 동일하다. ‘닭아[다라]’는 앞 음절의 겹받침 중 ‘ㅎ’이 탈락하고, 앞 음절의 ‘ㄹ’이 뒤 음절로 연음된다. ‘막일[망닐]’은 뒤 음절에 ‘ㄴ’이 첨가되며, 첨가된 ‘ㄴ’의 영향으로 앞 음절의 ‘ㄱ’이 ‘ㅇ’으로 교체된다. 두 단어는 각각 탈락, 첨가가 일어났으므로 음운 변동 전후 음운의 수가 동일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② 모두 자음의 변동만 일어났다.
③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④ ‘놓는[논는]’과 ‘닭아[다라]’에서는 앞 음절에서만, ‘칼날[칼랄]’에서는 뒤 음절에서만, ‘막일[망닐]’에서는 앞 음절과 뒤 음절 모두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⑤ ‘놓는[논는]’, ‘칼날[칼랄]’, ‘막일[망닐]’에서만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14. [출제의도] 현대 국어의 높임법 파악하기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모시고’를 활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하였다. ‘영희’에게는 ‘해체’를 사용하여 낮추고 있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 ‘얼굴’은 중세 국어에서 ‘형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낯’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어서 중세보다 의미가 축소되었다.
[오답풀이] ① ‘기쁜’은 어간의 받침 ‘ㄹ’을 어미의 첫소리로 옮겨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② ‘펼쳐’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다.
③ ‘틀’은 현대 국어의 ‘틀’과 형태가 다르다.
④ ‘꼴디면’에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어두자음군 ‘ㄴ’이 사용되었다.

[16~20] 인문

<출전> 사르트르 실존주의(재구성)

개관: 이 글은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사르트르는 본질보다 실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사물 존재(즉자존재)와 인간 존재로 양분하였고, 인간 존재는 대자존재이자 대타존재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인간은 타자의 시선을 극복하고 자신의 선택 속에 타자를 끌어들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사회적 관습을 간파하고 인간관계를 비판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지만, 인간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16.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 이 글은 사물, 나, 타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특성과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2, 3문단의 일부분에 ‘인간과 사물의 차이점’이 언급되어 있지만, 전체 내용을 아우르지 못하므로 부제로 적절하지 않다.
②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발생 배경’은 1문단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표제로 적절하지 않다.
③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변천 과정’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주요 개념과 한계’는 표제로 적절하지만, ‘자유와 책임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제로 적절하지 않다.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 2문단을 보면, 연필은 그 존재가 본질로부터 나온다. 즉, 사물의 존재는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는 표현은 사르트르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② 사르트르는 빈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3문단).
③ 사르트르는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사물 존재’와 ‘인간 존재’로 양분하였다(3문단).
④ 사르트르는 인간은 의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자존재’이며(3문단),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타존재’라고 여겼다(4문단).
⑤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를 갈등과 투쟁이라고 보았다(5문단).

1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 친구의 표정이 떠올라 웃는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타자의 시선으로 규정되는(대타존재) 사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런 시선은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타자에게 보낼 수 있다. 즉, 타자도 나를 즉자존재처럼 객체화할 수 있고, 나도 타자를 즉자존재처럼 객체화할 수 있다. 이는 서로가 서로를 대상으로 삼아 객체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나와 타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대자존재’로서의 모습에 해당한다.
③ 서로가 서로를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하는 것은 ‘대자존재’로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다.

19. [출제의도]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 사르트르는 개인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파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따라서 사르트르는 윤리 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신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신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종교적 실존’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에 의존하는 삶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사르트르는 자아실현의 과정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키르케고르는 자아실현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었다.
③ 사르트르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였고,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여겼다.
④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사르트르는 타자의 시선을 극복해야 한다고 여겼고, 키르케고르는 1, 2단계에서 느껴지는 절망을 극복해야 한다고 여겼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 부모님의 시선으로 인해 의사로 규정되는 학생은 ‘대타존재’에 해당한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의식하는 존재는 학생이고, 학생은 인간 존재이므로 ‘대자존재’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장래 희망과 관련하여 ‘학생’은 자신을 대상화하여 바라보고 있다.
③ ‘선생님’은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본질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④ ‘부모님’은 학생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대자존재’에 해당한다.
⑤ ‘학생’은 장래 희망과 관련된 선택에서 ‘너는 의사가 될 거야.’라는 부모님의 시선을 고려하고 있다.

[21~25] 문학(고전시가/고전수필)

<출전> (가) 이정, 「풍계육가」 / (나) 이학규, 「포화육가」
개관: (가)는 처사(處士)로서의 삶을 노래한 연시조이다.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소박한 삶을 지향하고,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계의 뜻을 담아내고 있다. (나)는 서울에서 온 나그네에게 들은 이야기 속 노비의 삶을 통해 유배지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견디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쓴 수필이다.

2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 (가)는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여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나)는 ‘나’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과 ‘여관집의 노비’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대비하여 운명에 순응하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추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③ (가), (나) 모두 고사를 활용하지 않았다.
④ (나)에는 ‘한여름’, ‘모기’ 등 계절감이 나타나는 어휘를 사용하였지만, (가)에는 계절감이 나타나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2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 <제4수>에서 ‘그지없다’고 한 ‘욕심’은 다음 행과 대비되어 속세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연과의 합일을 지속하려는 마음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1수>에서 ‘명월’이 좋아 ‘잠’을 자지 않는 행위는 자연과의 합일을 도모하는 행위이므로 자연친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제2수>에서 ‘작녹’은 벼슬과 녹봉이라는 의미로 세속적 가치를 지닌 소재이다. 그리고 닛도록 ‘문’을 단아두는 것은 세속적 삶을 멀리하려는 의도를 지닌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④ <제5수>에서 화자는 자연에 해당하는 ‘산’과 ‘물’을 청자로 설정하여 변함없는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제6수>에서 속세를 의미하는 ‘홍진’에 ‘나지 마라’고 한 것과 ‘칼 톱’을 무섭다고 표현한 것은 벼슬길의 위험함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출제의도] 작품 속 공간의 특성 이해하기

- ㉔는 ‘나’가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나’는 자연을 즐기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㉔는 ‘나’의 협소한 주거 공간으로, 햇볕을 피하기 위해 박을 심었지만 살기가 더 어려워졌고 병까지 얻게 되어 열악함을 느끼고 있다.
[오답풀이] ① ㉔는 소망과 관련된 공간은 아니다.
② ㉔는 ‘나’가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㉔는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다.
④ ㉔에서 ‘나’는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으므로 현실과 갈등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㉔는 ‘나’가 현재 불만을 느끼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 공간이다. 이후 나그네의 말을 듣고 현실에 순응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므로 갈등이 해소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⑤ ㉔, ㉔ 모두 회상의 공간으로 볼 수 없다.

2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 청자인 ‘나’는 옛 성현의 말씀을 배우기를 바라면서도 여관을 여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괴로워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그네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의도도 없다.

- ③ 나그네는 상대방 말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으며, 지식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없다.
④ 나그네는 상대방의 평소 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능력을 인정한 것이라 보기 힘들며, 상대방이 이루어낸 성과를 치하하려는 의도도 없다.
⑤ 나그네는 상대방의 말에 거짓으로 동조하는 척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도 없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㉔에서 나그네는 작가가 사는 곳이 잠시 머무는 곳을 말하며 이러한 현실에 만족하고 현재의 삶을 수용하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작가의 처지가 조금씩 개선되리라는 것을 일깨운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㉔에서 작가는 ‘소갈증이 심해지고 가슴이 답답한’ 병의 증상을 언급하여 유배 생활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㉔에서 나그네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③ ㉔에서 여관집의 노비는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진 운명이라 여기고 있으므로 노비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⑤ ㉔에서 나그네의 말을 서술하여 벽에 적는 행위는 나그네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된 교훈을 작가가 오래 간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6~30] 독서(과학)

<출전> 10퍼센트 인간(재구성)

개관 : 이 글은 인체의 면역계와 외부 물질의 공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외부 물질들은 주로 감염이나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인체에 이들이 침입하였을 때 이를 제거하는 면역 반응이 활발할수록 인체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위생가설은 외부 물질에 대한 지나친 배척이 오히려 면역계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고 본다. 실제로 외부 물질이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절T세포가 면역계 과민 반응의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26.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에서는 외부 물질이 지나치게 배척되는 상황이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통념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특정 가설을 수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1문단에서 면역 반응이 질병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한다는 관점을, 2문단에서 면역 반응이 지나쳐 인체에 해가 되는 관점을 소개하고 있으나 각각의 관점이 지닌 한계를 설명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7문단에서 면역계 과민 반응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5문단에서 면역세포들을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만 수지상세포와 T세포가 생성되는 위치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다.

2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위생 가설은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든 깨끗한 환경이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이 됨을 밝히고 있다(3문단). 이로 인한 긍정적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조절T세포가 장내미생물들이 인체에서 생존하는 이유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6문단).

② 현대 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이 이유가 됨을 확

인할 수 있다(3문단).

③ 알레르기나 천식, 자가면역질환 등이 구체적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2문단).

⑤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는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4문단).

28. [출제의도] 세부 정보 추론하기

4문단에서 외부 물질이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걸어 균형을 유지하게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부 물질의 도움 없이 면역계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1, 2문단에서 인체의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활발하면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됨을 지적하였고 4, 7문단에서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여 균형을 이룸을 제시하였다.

③ 1문단에서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이 주로 감염이나 질병의 원인이 됨을 제시하여 외부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문단에서 장내 미생물이 면역계 과민 반응의 치료법이 되는 조절T세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제시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외부 물질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현대 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은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6문단에서 장내미생물이 수지상세포의 성격을 바꾸어 자신을 공격하지 않도록 함을 확인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의 (가)는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 면역 반응의 과정을, (나)는 장내미생물에 의해 면역 반응이 억제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는 외부 물질의 유입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지만, (나)는 인체로 들어온 외부 물질이 생존하기 위해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의 수지상세포는 외부 물질을 인지하여 이를 제거하도록 함을 확인할 수 있다(5문단).

② (가)의 T세포는 외부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다(5문단).

③ (가)의 미성숙T세포는 조력T세포와 세포독성T세포 두 가지로 분화되고(5문단), (나)의 미성숙T세포는 조절T세포로 분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6문단).

④ (나)의 조절T세포가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한 염증을 억제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7문단).

3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는 면역계 과민 반응인 질병을 외부 물질인 기생충을 이용하여 치료한 사례이다. 이것이 치료법이 되었다는 것은 외부 물질이 과도한 면역 반응에 균형을 이루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② 기생충을 포함한 외부 물질은 생존을 위하여 인체의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③ 위생가설에서는 인체가 진화해 온 환경이 무균 청정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물질이 지나치게 배척되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④ 면역계가 환경 발전에 적응하고 있다면 기생충 같은 외부 물질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⑤ 면역 반응이 지나쳐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면역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

[31~34] 문학(고전소설)

<출전> 작자 미상, 「이대봉전」

개관 : 이 작품은 이대봉과 장애항의 영웅적 활약상을 보여주는 군담소설이다. 이대봉과 장애항이 서로 협력하면서 영웅적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여성도 남성과 대등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 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황제가 남북의 적병이 제침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 대봉이 전교를 보고 황성으로 오는 장면, 대봉과 애항이 출전하는 장면, 애항이 전장에서 활약하는 장면 등 다양하게 장면을 전환하며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인물 간 갈등은 있지만, 배경을 묘사한 부분은 없다.

② 초월적 공간과 환상적 요소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서술자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해학적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32. [출제의도] 인물의 발화 이해하기

[A]는 충렬왕후인 애항이 전장에 참여하기 전 황제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결의를 드러내는 말이며, [B]는 애항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항복한 적군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말이다. 따라서 [A]에 드러난 애항의 결의가 실행된 것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황제가 이대봉을 불러들인 이유는 이대봉이 능력을 발휘하여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므로 황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대봉이 황제가 보낸 전교를 보고 즉시 황성으로 향하는 장면을 통해 군주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장애항이 규중을 벗어나 다시 전장에 대원수로 참여해 활약하는 장면을 통해 당대의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장애항이 잉태를 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출전하는 모습을 통해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이대봉은 북방의 흉노를, 장애항은 남방의 선우를 치러 떠나는 장면에서 이대봉과 장애항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 성어 찾기

이대봉은 잉태한 지 일곱 달이나 되는 장애항이 전장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말은 ‘거듭하여 간곡히 하는 당부’라는 뜻의 ‘신신당부(申申當付)’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경거망동(輕舉妄動) :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

③ 애걸복걸(哀乞伏乞) : 소원 따위를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빌.

④ 이실직고(以實直告) : 사실 그대로 고함.

⑤ 횡설수설(橫說竪說) :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지껄임.

[35~37] 문학(현대소설)

<출전>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개관 : 이 작품은 나환자들의 거주지인 소록도를 배경으로, 나환자들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 내려는 인물의 이야기이다. 주인공인 조 원장과 병원 관계자들, 나환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진정한 삶을 위한 공간 건설의 문제를 실감 나게 그리고 있다.

3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상옥과 조 원장은 주정수 원장, 동상 이야기를 하며 갈등을 겪고 있으며, 장로들과 조 원장도 간척 사업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 양상이 대화와 행동을 통해 실감 나게 제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인물들의 내적 독백은 나타나지 않았다.

②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제시한 묘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④ 과거 회상 장면이 삽입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지도 않았다.

⑤ 다른 공간의 사건이 나오지만 동시에 사건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이를 통해 서사의 흐름도 지연되지 않았다.

36.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 ㉠에서 조 원장은 상옥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고 당황해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 조 원장이 상옥의 말을 비웃지 않았고, 상옥도 조 원장을 조롱하지 않았다.
③ ㉡: 조 원장이 상옥의 말을 중단시키려고도 하지 않았다.
④ ㉢: 간척 사업에 대해 섬사람들은 조 원장의 기대만큼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조 원장의 기대가 비현실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 ‘그는 이제 물러설 수가 없었다.’라는 이어진 부분을 통해 조 원장이 간척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좌절감을 드러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 장로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여전히 불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동상은 주정수 원장을 비롯한 이전 원장들의 명예욕과 타락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상옥은 이전 원장들과 마찬가지로 조 원장도 타락하지 않을까 의심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시선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조 원장은 축구 경기를 보급시켜 시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섬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조 원장은 실질적 권력자로서 지배자라고 볼 수 있으며 섬사람들은 피지배자라고 볼 수 있다.

[38~42] 독서(사회)

<출전> 한국인의 법과 생활(재구성)

개관: 이 글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방법과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증거조사를 지켜본 후, 배심원들의 평의와 평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배심원과 재판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1문단에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며, 2문단에서 6문단까지 배심원 선정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절차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선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검사와 변호인에게 질의응답을 거친 후 기피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4문단).
[오답풀이] ① 예비배심원은 배심원과 달리 평의와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2문단).
②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열릴 수 있다(1문단).
④ 국민참여재판에서 직접 판결을 선고하는 사람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재판장이다(1문단).
⑤ 재판장이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6문단).

40.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 ㉠과 ①의 ‘내리다’는 모두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②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에게 상이나 벌 따위가 주어지다.’를 의미한다.
③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떨어지거나 낮아지다.’를 의미한다.

- ④ ‘위에 있는 것을 낮춘 곳 또는 아래로 끌어당기거나 늘어뜨리다.’를 의미한다.
⑤ ‘명령이나 지시 따위를 선포하거나 알려주다.’를 의미한다.

41.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 추첨된 배심원에 대해 제기된 기피 이유가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경우는 ‘이유부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모두 5명이다.
[오답풀이] ① 1차에서 추첨된 배심원후보자 수와 같은 인원인 14명이 3차에 걸쳐 모두 확정되었다.
② <보기>는 모두 9명의 배심원이 필요한 재판이므로 검사와 변호인은 각 5명까지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한 인원은 모두 4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변호인 모두 최대 인원만큼 신청하지 않았다.
④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중 1, 2, 3차에 걸쳐 모두 23명이 추첨되어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을 받은 후, 배심원 14명이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선정기일에 출석한 40명 중 추첨되지 못한 17명은 관련된 질문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⑤ 필요한 배심원 수와 예비배심원의 수를 합한 수만큼을 1차에서 추첨을 하는데, 모두 14명이 추첨되었다. 배심원은 최대 9명, 예비배심원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한 만큼,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모두 최대 인원만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4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 평결서를 보면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다수결로 판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재판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5문단).
[오답풀이] ①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무작위로 배심원후보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므로, 배심원후보자로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3문단).
② 김한국 씨가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면 평의와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2문단).
③ 법정형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9명의 배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평결서를 보면 배심원은 모두 7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2문단).
⑤ 양형에 대한 논의는 유죄로 평결이 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평결과 판결이 모두 무죄이므로, 양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5문단).

[43~45] 문학(현대시)

<출전> (가) 신경림, 「수유나무에 대하여」 / (나) 김기택, 「멸치」

개관: (가)는 고난을 견뎌낸 수유나무가 그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드러난 작품이다. (나)는 멸치 볶음을 관찰하면서 멸치가 본래의 생명력을 상실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멸치의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작품이다.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 (가)의 1, 2행에서 설의법을 활용하여 수유나무가 ‘살아온 나날’이 ‘어둠’뿐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16, 17행에서 설의법을 활용하여 ‘노랫소리’를 듣는 이가 ‘하늘과 별뿐’만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설의법이 활용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노랑게’, ‘노란’은 색채어에 해당하지만, (나)에서는 색채어가 활용되지 않았다.
③ (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는 활용되지 않았다.
④ (나)의 ‘빠다귀처럼’, ‘모래 더미처럼’ 등에서 직유법이 활용되었으나, (가)에는 직유법이 활용되지 않았다.
⑤ (가)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에서는 독백

체가 활용되었다.

44.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 ‘산’과 ‘바다’는 ‘꽃향기’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넘고’, ‘건너’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3~6행에 묘사된 수유나무의 모습은 수유나무가 살아오면서 겪은 고난을 짐작하게 한다.
② 수유나무가 ‘바람과 노을’을 ‘동무’하여 꽃을 피웠다는 점에서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온몸’이 뒤틀렸던 모습은 수유나무가 겪은 고난의 모습이고, ‘어깨와 등과 손끝’에 꽃이 핀 모습은 수유나무가 고난을 견뎌낸 후 그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게 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대조됨을 알 수 있다.
⑤ 화자는 ‘노란 꽃잎’이 ‘폴벌레의 노랫소리’가 된다고 상상하고 있는데, 이 ‘노랫소리’는 ‘하늘과 별’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까지도 듣게 된다는 점에서 퍼져나감을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는’ 행위는 멸치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유유히’, ‘무수한 갈래의 길’에서 멸치가 본래 자유로운 생명력을 지닌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그물’은 물결과 멸치를 분리시켜 생명력이 상실되게 한 외부적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모래 더미’는 생명력을 상실하고 ‘길거리에 쌓인’ 멸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멸치 볶음을 관찰하면서 ‘지느러미’와 ‘물결’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